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0년 1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2009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10년 1월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 음료 등에서는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6.9%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운수, 금융·보험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80.1%), 자동차(83.1%), 1차 금속(50.5%)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5.8%), 음료(-2.2%)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12.1%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사회복지(14.0%), 운수(11.6%), 금융·보험(8.9%), 부동산·임대(8.6%), 도·소매(5.8%), 숙박·음식점(3.2%)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10년 1월 소비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하였고, 설비투자는 20.4% 증가함.

- 소비자판매액지수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39.8%,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에서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는 -5.2%

감소함.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전년동월대비 모두 늘어남. 건설 기성은 공공·민간부문 모두 각각 전년동월대비 11.6%, 7.6% 증가하였으며 건설 수주는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발주는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의 건축공사 발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하여 2009년 3월 이후 11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3%p 하락하여 2009년 1월부터 12개월 연속상승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7% 상승(생활물가지수 3.4% 상승)

○ 2010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였고, 2월 생활물가지수는 116.5로 나타나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1월	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5	-6.2	4.2	16.1	-0.7	-25.7	36.9(0.0)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4	-6.7	4.4	16.8	-0.9	-27.3	38.9(-0.2)
	출 하	8.9	6.6	5.3	-10.1	2.4	-14.7	-5.9	2.1	12.8	-1.7	-23.6	32.4(0.8)
	내 수	5.3	1.7	1.7	-11.0	-0.7	-16.3	-6.6	3.1	12.2	-2.3	-24.3	31.0(-6.8)
	수 출	14.3	14.3	10.3	-8.8	7.1	-12.4	-4.7	0.8	13.7	-0.8	-22.6	34.4(-3.0)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4	1.6	2.2	3.3	1.7	-1.7	4.6(-0.8)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9	1.6	3.4	10.6	2.7	-2.9	6.9(-1.3)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7	-13.4	-10.1	10.7	-8.1	-21.1	20.4(-9.8)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8	3.7	2.7(0.4)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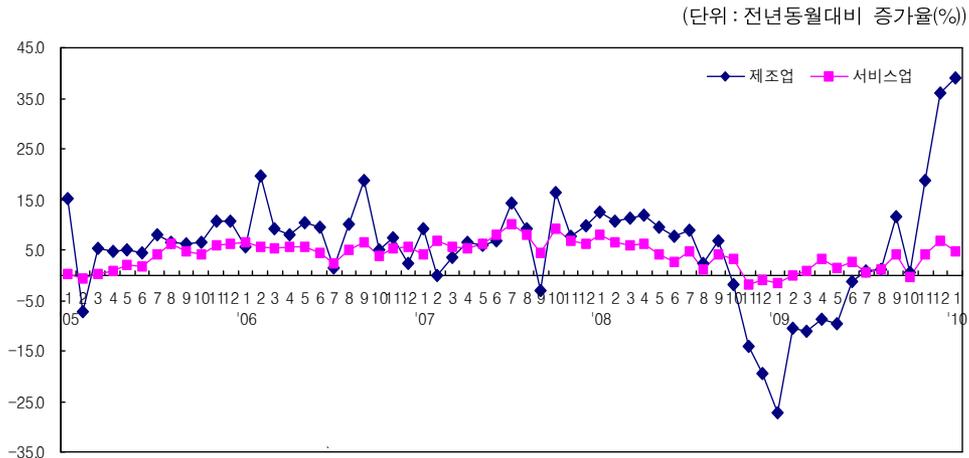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는 2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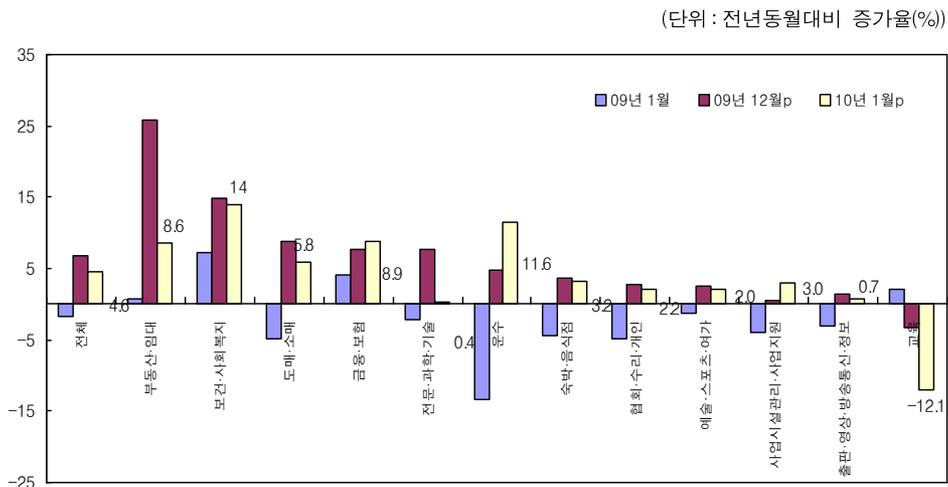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10. 3.

- 의복·신발(-0.2%) 부문만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전월대비 상승함. 식료품·비주류음료(1.3%), 외식·숙박(0.4%), 주거 및 수도·광열(0.3%), 가구집기·가사용품(0.3%), 교양·오락(0.2%), 교육(0.2%), 기타잡비(0.2%) 보건의료(0.1%)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감소 지속

- 2010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08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3천 명(1.6%)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213천 명으로 245천 명(1.8%) 증가하였고, 여성은 9,868천 명으로 128천 명(1.3%) 증가함.
- 2010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1.9%)이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47.8%)은 전년동월대비 변동이 없었음.
- 2010년 1월 중 고용률은 56.6%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68.3%로 전년동월대비 1.5%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5.4%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음(그림 3 참조).
- 2010년 1월 중 취업자는 22,86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0.0%)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4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1천 명(0.7%)이 증가한 반면, 여성 취업자는 9,37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천 명(-0.9%)이 감소함(그림 4 참조).
- 2010년 1월 중 실업자는 1,21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8천 명(43.4%)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5.0%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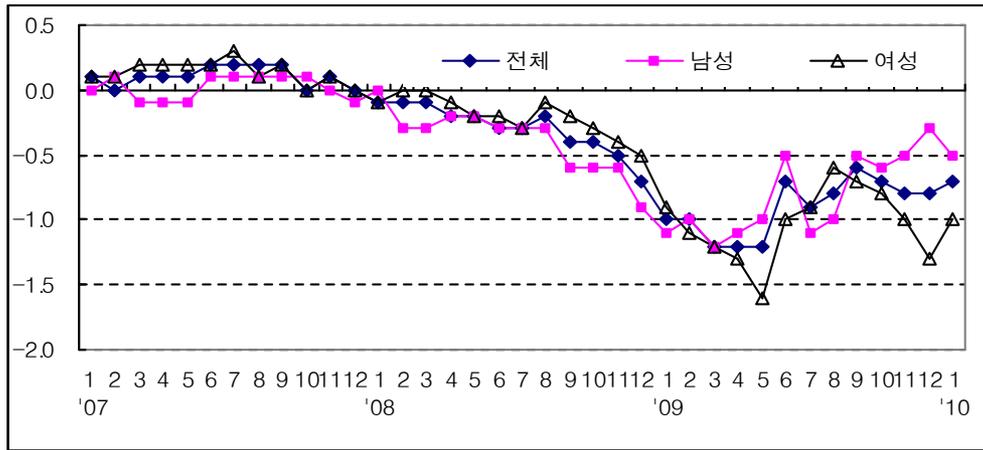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경제활동인구	24,394 (0.3)	23,812 (-0.2)	23,709 (-0.1)	24,680 (0.2)	24,637 (0.5)	24,448 (0.2)	24,063 (0.1)	24,082 (1.6)
참가율	61.3	59.7	59.5	61.7	61.3	60.7	59.7	59.6
취업자	23,636 (0.3)	22,904 (-0.6)	22,861 (-0.4)	23,737 (-0.6)	23,751 (0.0)	23,631 (0.0)	23,229 (-0.1)	22,865 (0.0)
고용률	59.4	57.4	57.3	59.3	59.1	58.7	57.6	56.6
실업자	757	908	848	943	886	817	834	1216
실업률	3.1	3.8	3.6	3.8	3.6	3.3	3.5	5.0
비경제활동인구	15,373 (2.5)	16,088 (3.3)	16,156 (3.2)	15,347 (3.0)	15,528 (2.5)	15,829 (3.0)	16,253 (3.0)	16,305 (0.9)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2010년 1월 고용동향』, 2010. 2.

[그림 3] 성별 고용률 증가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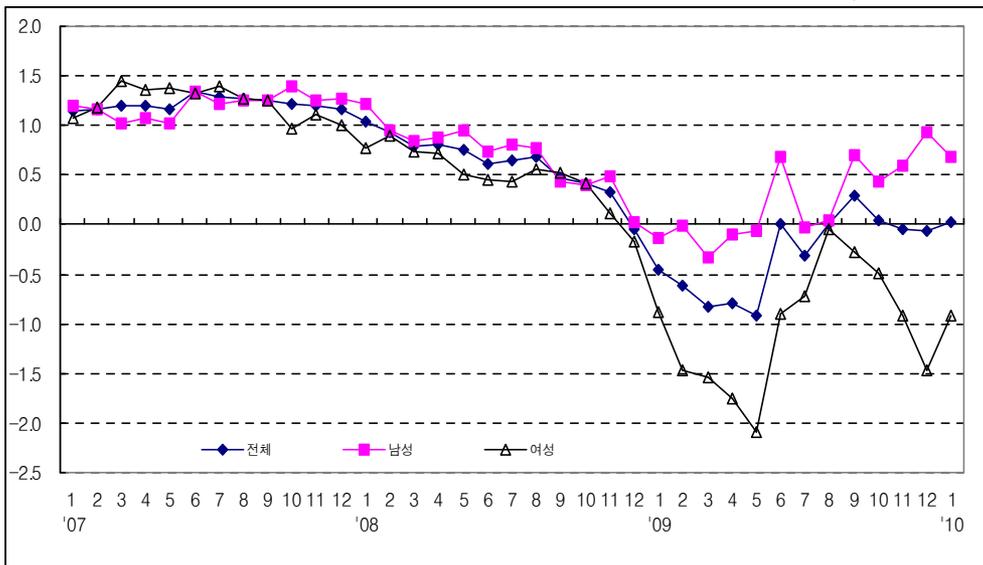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72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 명(27.2%)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4천 명(76.2%)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5.1%로 전년동월대비 1.0%p, 여성은 5.0%로 전년동월대비 2.1%p 상승하였음.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0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3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0천 명(0.9%)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 명(0.5%)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76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4천 명(1.2%)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9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 명(19.0%) 증가한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1천 명(-13.1%),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61천 명으로 113천 명(-2.7%)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증가로 반전, 내수산업 감소세 지속

- 2010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74천 명, 2.3%), 전기·운수·통신·금융업(92천 명, 3.3%), 제조업(29천 명, 0.8%)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60천 명, -12.4%), 건설업(-81천 명, -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2천 명, 0.9%)에서는 감소함.
 -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추세로 반전함(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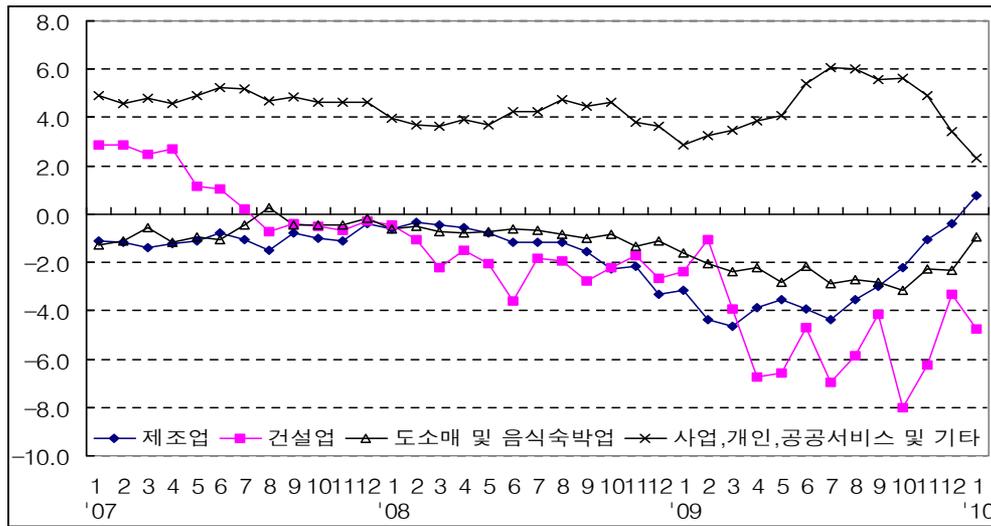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산업	23,636 (0.3)	22,904 (-0.6)	22,861 (-0.4)	23,737 (-0.6)	23,751 (0.0)	23,631 (0.0)	23,229 (-0.1)	22,865 (0.0)
농림어업	1,695 (0.5)	1,398 (1.0)	1,282 (1.2)	1,817 (-1.3)	1,799 (-1.4)	1,579 (-6.9)	1,231 (-12.1)	1,123 (-12.4)
제조업	3,910 (-2.6)	3,850 (-4.1)	3,895 (-3.2)	3,843 (-3.8)	3,791 (-3.6)	3,862 (-1.2)	3,872 (-0.4)	3,924 (0.8)
건설업	1,811 (-2.2)	1,705 (-2.5)	1,698 (-2.4)	1,772 (-6.0)	1,699 (-5.7)	1,704 (-5.9)	1,701 (-3.3)	1,617 (-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57 (-1.1)	5,589 (-2.0)	5,655 (-1.6)	5,534 (-2.4)	5,511 (-2.8)	5,511 (-2.6)	5,567 (-2.3)	5,602 (-0.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787 (4.0)	7,618 (3.2)	7,563 (2.9)	7,984 (4.5)	8,175 (5.9)	8,149 (4.6)	7,994 (3.4)	7,737 (2.3)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754 (-1.9)	2,722 (-2.6)	2,747 (-2.3)	2,765 (-1.8)	2,753 (-0.9)	2,802 (1.8)	2,842 (3.4)	2,839 (3.3)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10년 1월 고용동향』, 2010. 2.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비임금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취업자 감소추세 지속

- 2010년 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5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0천 명(-3.5%)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29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천 명(1.5%)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712천 명으로 609천 명(6.7%)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860천 명으로 121천 명(-2.4%), 일용근로자는 1,725천 명으로 144천 명(-12.4%)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6 참조).
 - 2009년 이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 감소 추세가 지속됨(그림 6 참조).
- 2010년 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0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천 명(1.8%)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030천 명으로 21천 명(-0.1%) 감소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82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4.2%) 감소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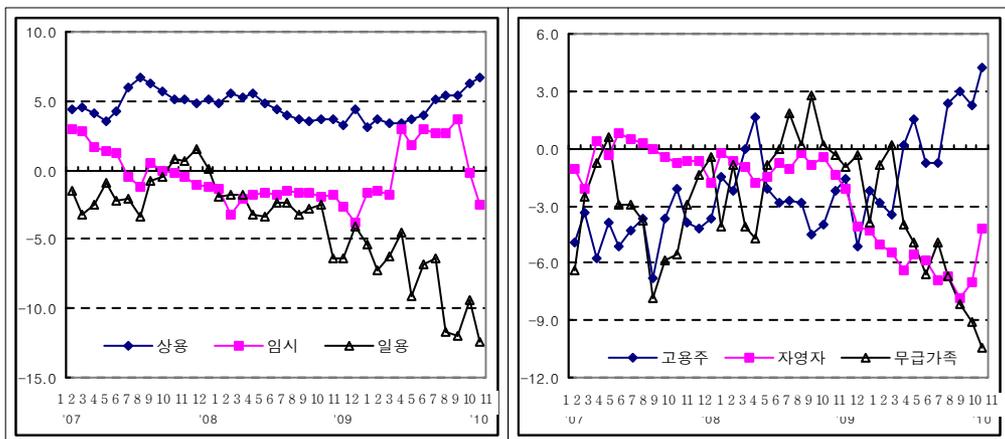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전 체	23,636 (0.3)	22,904 (-0.6)	22,861 (-0.4)	23,737 (-0.6)	23,751 (0.0)	23,631 (0.0)	23,229 (-0.1)	22,865 (0.0)
비임금근로자	7,343 (-1.1)	6,877 (-3.1)	6,808 (-1.8)	7,212 (-4.1)	7,166 (-4.7)	6,952 (-5.3)	6,674 (-5.4)	6,569 (-3.5)
자영업주	5,939 (-1.6)	5,620 (-3.4)	5,587 (-2.0)	5,787 (-4.7)	5,776 (-4.6)	5,600 (-4.7)	5,514 (-4.6)	5,475 (-2.0)
무급가족종사자	1,404 (0.9)	1,258 (-1.8)	1,221 (-1.0)	1,425 (-1.6)	1,390 (-5.5)	1,292 (-7.9)	1,161 (-9.1)	1,094 (-10.4)
임금근로자	16,294 (0.9)	16,027 (0.5)	16,053 (0.1)	16,525 (1.1)	16,585 (2.2)	16,678 (2.4)	16,555 (2.3)	16,297 (1.5)
상용근로자	9,106 (3.6)	9,157 (3.6)	9,102 (3.3)	9,294 (3.5)	9,487 (4.2)	9,621 (5.7)	9,632 (6.2)	9,712 (6.7)
임시근로자	5,062 (-1.8)	4,928 (-2.7)	4,982 (-2.6)	5,136 (-0.1)	5,174 (2.5)	5,167 (2.1)	5,074 (-0.2)	4,860 (-2.4)
일용근로자	2,126 (-3.8)	1,942 (-5.3)	1,969 (-6.3)	2,094 (-6.0)	1,924 (-7.5)	1,891 (-11.1)	1,849 (-9.3)	1,725 (-12.4)
36시간 미만	2,833 (11.1)	3,092 (11.6)	3,146 (9.9)	2,997 (-1.9)	3,390 (-33.9)	2,961 (4.5)	3,126 (-1.4)	3,202 (1.8)
36시간 이상	20,552 (-1.2)	19,351 (-2.7)	19,051 (-2.4)	20,480 (-3.0)	19,894 (9.7)	20,404 (-0.7)	19,826 (0.3)	19,030 (-0.1)

주: ()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10년 1월 고용동향 증가율』, 2010. 2.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전 연령 모두 실업자 증가

- 2010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60세 이상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10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중 60세 이상은 21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9천 명(532%)이 증가함.
 - 2010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대(8.7%, 1.0%p), 30대(3.9%, 0.4%p), 40대(2.9%, 0.7%p), 50대(3.7%, 1.4%p), 60세 이상(8.8%, 7.4%p)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7.1%, 4.1%p), 고졸(5.2%, 0.8%), 대졸 이상(3.8%, 0.8%p) 모두 상승하였음.
- 2010년 1월 중 전체 실업자 1,216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7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 명,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146천 명으로 342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전 체	757(3.1)	908(3.8)	848(3.6)	943(3.8)	886(3.6)	817(3.3)	834(3.5)	1,216(5.0)
15~29세	300(7.0)	368(8.6)	356(8.2)	351(8.0)	350(8.1)	320(7.6)	324(7.6)	411(9.3)
30~39세	202(3.3)	227(3.7)	213(3.5)	237(3.9)	213(3.5)	202(3.3)	203(3.4)	232(3.9)
40~49세	134(2.0)	166(2.5)	144(2.2)	176(2.6)	160(2.4)	151(2.3)	152(2.3)	188(2.9)
50~59세	93(2.1)	108(2.4)	101(2.3)	127(2.7)	118(2.5)	104(2.2)	110(2.4)	172(3.7)
60세 이상	29(1.1)	39(1.6)	34(1.4)	53(1.9)	46(1.6)	41(1.5)	46(1.9)	216(8.8)
중졸 이하	111(2.1)	143(2.9)	144(3.0)	141(2.6)	116(2.2)	119(2.3)	137(2.9)	336(7.1)
고졸	383(3.8)	438(4.5)	432(4.4)	459(4.6)	460(4.6)	393(4.0)	403(4.1)	525(5.2)
대졸 이상	263(2.9)	327(3.6)	272(3.0)	343(3.7)	310(3.3)	306(3.2)	295(3.1)	355(3.8)
취업무경험실업자	37	47	44	38	37	36	44	70
취업유경험실업자	721	861	804	905	849	781	791	1,146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10년 1월 고용동향』, 2010. 2.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09년 임금상승률, 전년대비 0.7% 하락

○ 2009년,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22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0.7% 하락

- 전년인 2008년에는 3.1% 상승한 데 비해 2009년에는 하락세로 반전됨.
-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로 나누어 보면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그리고 비상용근로자의 임금하락폭이 두드러져 경기침체가 2009년 임금하락의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실질임금은 3.4% 하락

-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에 비해 3.4% 하락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월, 2005=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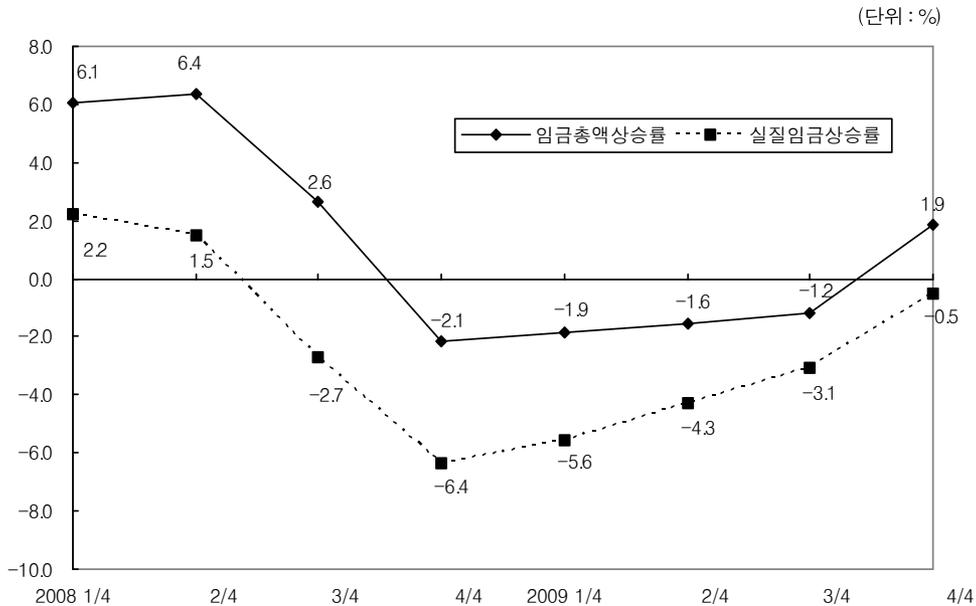
	2007	2008				2009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전체근로자 임금총액	2,561 (-)	2,640 (3.1)	2,662 (6.1)	2,563 (6.4)	2,672 (2.6)	2,661 (-2.1)	2,622 (-0.7)	2,612 (-1.9)	2,524 (-1.6)	2,641 (-1.2)	2,711 (1.9)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716 (-)	2,810 (3.4)	2,811 (5.7)	2,746 (7.5)	2,842 (3.0)	2,840 (-1.7)	2,795 (-0.5)	2,753 (-2.1)	2,684 (-2.3)	2,819 (-0.8)	2,915 (2.6)
	정액급여	2,026 (-)	2,154 (6.3)	2,103 (5.4)	2,171 (8.8)	2,148 (5.9)	2,194 (5.1)	2,166 (0.6)	2,142 (1.9)	2,156 (-0.7)	2,163 (0.7)	2,205 (0.5)
	초과급여	165 (-)	163 (-1.1)	168 (8.2)	169 (1.7)	158 (-4.2)	156 (-9.4)	156 (-4.1)	139 (-17.4)	151 (-10.9)	164 (4.0)	170 (9.2)
	특별급여	525 (-)	493 (-6.2)	540 (5.8)	406 (3.1)	536 (-5.5)	490 (-22.2)	472 (-4.2)	472 (-12.5)	386 (-5.0)	492 (-8.2)	539 (10.0)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	904 (-)	855 (-5.5)	887 (1.9)	816 (-10.4)	880 (-4.2)	836 (-9.0)	830 (-2.9)	829 (-6.5)	806 (-1.3)	817 (-7.2)	867 (3.7)	
실질임금(전체 근로자)	2,443 (-)	2,406 (-1.5)	2,478 (2.2)	2,339 (1.5)	2,405 (-2.7)	2,402 (-6.4)	2,324 (-3.4)	2,341 (-5.6)	2,239 (-4.3)	2,331 (-3.1)	2,389 (-0.5)	
소비자물가지수	104.8 (-)	109.7 (4.7)	107.4 (3.8)	109.6 (4.8)	111.1 (5.5)	110.8 (4.5)	112.8 (2.8)	111.6 (3.9)	112.7 (2.8)	113.3 (2.0)	113.5 (2.4)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2009년 4/4분기 임금상승률, 전년대비 1.9% 상승

- 2009년 4/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11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9% 상승
 - 2009년 분기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4분기, 2/4분기와 3/4분기는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년인 2008년 4/4분기 임금상승률이 하락한 데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가 큼.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 증가율은 0.5%인 데 반하여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증가율은 2008년 4/4분기에 대폭 하락한 데 따른 반등효과로 각각 9.2%, 10.0%를 기록
 -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3.7% 상승한 86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
- 실질임금은 0.5% 하락
 - 2009년 4/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임금총액은 1.9% 상승한 데 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0.5% 하락함.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추이

- 2010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 발생건수는 4건, 근로손실일수(2010년 2월 17일 기준)는 39,569일로 집계됨.

〈표 7〉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0. 1. 1~2010. 2. 25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4	6	△33.3
종 결	1	3	-
진 행	3(4)	3(3)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39,569	10,058	293.4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2월 17일 기준임.
 자료: 노동부.

◆ 2009년 체불임금 현황

- 작년 한 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액은 1조 3,438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40.6% 증가하였으며(2008년 기준 9,561억 원), 임금체불 근로자는 30만 명으로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08년 기준 25만 명). 2003년 이후 임금체불 근로자 및 체불임금액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노동부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대책 마련
 - 체불발생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 및 경제적 제재 등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한다고 보고(현재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약 10~15% 수준의 벌금 부과),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

〈표 8〉 2009년 체불임금 현황

(단위: 천 명, 억 원, 개소, %)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근로자수	155	301	292	277	194	249	301
금액	5,211	10,426	10,291	10,297	8,403	9,561	13,438
규모별	전체	5인 미만	5~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사업장수	106,293	55,096	41,297	7,535	1,947	279	299
근로자수	301	101	121	41	18	4	15
체불금액	13,438 (100.0)	2,693 (20.0)	5,307 (39.5)	2,360 (17.6)	1,309 (9.8)	154 (1.1)	1,614 (12.0)

주: 2004년부터 체불근로자 1인 이상 집계(2003년까지는 5인 이상).
 자료: 노동부, 보도자료(2010년 1월 18일자).

- 또한,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연 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 지도

◆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현황

-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서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노사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2009년 12월말 기준 협정체결률은 대상 사업장 259개소 중 64.1%인 166개소로 조사됨.
 - 협정 체결 사업장 중 78.9%인 131개소에서 노사가 자율로 협정을 체결했고, 노동 위원회가 결정한 곳은 21.1%인 35개소임.
 - 업종별로는 철도·혈액·우정은 전 사업장에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가스 23.5%, 석유 28.6%, 병원 70.0% 등으로 나타남. 반면 통신사업장은 단 한 곳도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였음.

〈표 9〉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현황(2009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전체	철도	도시 철도	항공 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	한국 은행	통신	우정	
전체 대상	259	1	7	12	1	13	17	7	190	2	1	7	1	
체결	소계	166	1	6	7	1	9	4	2	133	2	0	0	1
	자율	131	0	2	7	1	4	2	2	112	0	0	0	1
	결정	35	1	4	0	0	5	2	0	21	2	0	0	0
미체결	93	0	1	5	0	4	13	5	57	0	1	7	0	

자료: 매일노동뉴스, 2010년 2월 16일자.

〈표 10〉 한국노총 2010년 임금인상 요구율

2010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내 용
(1) 노동자 가구원수 3.44인 생계비(전국근로자가구)		4,165,574원
(2)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생계비(69.6%)		2,899,240원
(3) 2010년 상반기 물가상승률(1.4%)을 반영한 생계비		2,939,829원
(4) 2009년 월평균임금 (2009년 1~3/4분기 누계 평균)	월 정액임금+특별급여	2,603,699원
	정액임금	2,153,541원
(5)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 (12.9% 부족)	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36,130원
	월 정액임금 기준	277,992원
(6) 2010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가구주 충족생계비의 97%)		9.5%
(7) 월임금획득 목표(9.5%)	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2,851,634원
	월 정액임금 기준	2,358,587원
(8) 임금요구 금액(9.5%)	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247,935원
	월 정액임금 기준	205,046원

자료: 한국노총, 보도자료(2010년 2월 18일자).

◆ 한국노총, 2010년 임금인상 요구율 확정

- 2010년 현재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예년의 가구주 충족 생계비의 97% 수준에 해당하는 9.5%로 결정
 - 이는 전체노동자 평균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급여+상여금 월할액) 2,603,699원의 9.5%(247,935원) 및 전체노동자 월 정액임금 2,153,541원의 9.5%(205,046원) 인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민주노총,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추천 관련 의견 제출

- 2월 19일(금) 민주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라 함) 위원추천 관련 의견 제출
 - 노동부는 2월 19일까지 근면위 위원을 추천하고, 추천이 없을 시 추천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근면위 참여 여부를 차기 중집회의(3월 2일 예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2월 19일까지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의견 제출, 3월 3일 중집회의에서 근면위 참여를 결정함.
- 2월 18일(목) 정부가 여성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을 확정·발표하자 민주노총은 19일 『유연근무제 도입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 발표

-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억제·축소, 임금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육아문제를 사회 전체 차원에서 책임지는 복지증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2월 20일(토) 13:10~15:00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는 서울역에서 조합원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스·연금·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부문 노동 탄압 분쇄 결의대회』 개최

◆ 근로시간면제위원회 발족

- 노동부는 근면위 위원 위촉절차를 마무리하여 2월 26일(금)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음.
 - 노동부는 ‘근면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12.4 노사정 합의」 정신을 반영하여 산업 현장에 근로시간면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현장감과 균형감을 가진 인사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밝힘.
 -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며, 2월 26일 근면위 제1차 회의에서 선출할 예정
- 2월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근면위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규정에 따라 60일의 심의기간을 갖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함.

◆ MBC노조, 파업찬반 투표 가결

- 노조는 2010년 2월 8일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3명) 선임 및 엄기영 사장 사퇴 등이 정권의 MBC장악 음모라며 2월 8일부터 신임 이사(3명 중 2명) 출근 저지 계속, 2월 11일~18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9.9% 찬성으로 가결시킴.
 - 방송문화진흥회는 2월 22일부터 인선작업에 들어가 서류심사로 후보자를 3~5명으로 압축한 뒤 인터뷰를 거쳐 2월 26일 김재철 청주MBC 사장을 신임 MBC사장으로 내정
 - 한편 노조는 정부의 MBC장악 저지를 위해 2월 8일부터 진행해 온 신임 이사진(제작·보도본부장) 출근 저지투쟁을 계속하고, 신임 사장이 출근하는 3월초 총파업에 돌입(2월 11일~18일 파업 찬반투표 69.9% 찬성 가결, 파업 돌입 시기 등 비대위에 위임)할 예정
 - ※ 재적 조합원 2,013명 중 1,847명 투표(91.8%) → 찬성 1,402명(69.6%), 반대 439명

◆ 한진중공업, 전면파업 돌입

- 2009년 12월 31일 사측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희망 퇴직 349명 등 400여 명을 감원한 데 이어 설계부문 분사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600여 명에 대한 감원을 계획하자 노조는 이에 쟁의 돌입
 - 2010년 1월 5일부터 1월 22일까지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 추진에 반발, 4시간 부분파업, 2월 2일 사측은 노사협의를 진전 없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3월 5일자, 352명)』 신고함. 이에 노조는 부분파업(2월 3일~12일 5차례 4~7시간), 상경 집회(2월 2일~11일, 120여 명) 등 반발
 - 2월 19일 11:00~18:20 노사는 구조조정 관련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사측은 해고회피 방안으로 무급휴직·희망퇴직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노조는 경영악화를 초래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다면 고통분담을 할 수 있다는 절충안 제시
 - ※ 노조안 주요 내용: ▲경영위기에 대해 수주 담당 상무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 ▲회사는 2009년 임단협에 대해 인상을 전제한 입장을 밝힐 것, ▲회사의 필요재원 150억 원(무급휴직 3월분 임금) 중 100억 원을 회장 등 경영진이 분담한다면 나머지 50억 원은 노조가 책임질 수 있음, ▲회사는 인력조정 중단하고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할 것
- 2월 25일 노조는 사측의 2차 희망퇴직 모집에 반발, 13:00부터 전 조합원 4시간 파업, 14:00~14:15 확대간부 30여 명, 회사 1층 로비에서 『정리해고 반대, 2.26(금)부터 전면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개최, 19:30~21:00 조합원 800여 명, 사내광장에서 야간문화제 개최 후 해산
- 2월 26일(금) 10:00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1,200여 명)한 가운데
 - 14:00~20:00 노사는 인위적 구조조정 중단, 파업 철회 및 업무복귀, 2009년 임단협 진행, 노사는 회사 생존을 위해 수주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등 4개항에 합의
 - ※ 노사갈등 장기화가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 현대자동차, 노조의 특별단체교섭 요구안 거부

- 2월 12일(금) 노조는 사측에 전임자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요구

- ※ 특별보충교섭 요구안
 - ▲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
 - ▲ 모든 조합원의 기존 노조활동을 현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할 것
 - ▲ 노조 선출직 간부에 대한 현행 유급활동시간을 보장할 것
 - ▲ 각종 법에 의거한 노조활동과 단협상 노조활동을 현행처럼 유급으로 보장할 것
- 2월 22일 사측은 노조의 기존 전임자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개정 노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힘.
 - 개정 노조법은 강행규범으로 개별 노사가 개정법에 배치되는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무효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노조 요구에 따라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201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전임자임금지급 내용의 기존 단협('09.12.28 체결)이 개정법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 의해 무효가 됨을 지적
 - 개정법에 근로시간면제 기준과 한도를 상반기까지 마련토록 명시한 바, 그 결과에 따른 적용 방식과 절차 여부에 관해 필요하다면 노사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힘.
 -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월 19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1회 정기총회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도 회원사에 노조의 전임자 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

◆ 한국철도공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 노조는 2월 23일 지난해 파업('09.11.26~12.3) 관련 985명의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서를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008년 중단된 단체교섭을 지난해 5월 25일 재개하면서 노사요구안을 170건으로 재정리, 11월 24일까지 총 77회 노사교섭에서 72건 잠정합의, 98건 미합의
 - 이에 노조는 사측의 단협 개정안(임금구조, 교대제, 전임자축소 등) 및 복지 축소 등에 반발, 2009년 9월 8일~11월 6일 간헐적 파업, 10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72.6% 찬성), 11월 26일~12월 3일까지 전면파업
 - 사측은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파업 관련 주동자 고소·징계, 11월 24일 단협해지 통고
 - ※ 징계 등 처리현황: ▲8천여 명 징계(파면 30명, 해임 159명 등) ▲고소·고발 466명(구속 1명) ▲손배청구 96억 5천만 원

-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노조는 확대쟁대위를 개최, 상반기 투쟁계획 논의
 - ※ 투쟁계획: ▲파업유도 국정조사 촉구 및 징계 대응 투쟁 강화 ▲3월말까지 각 단위별 투쟁 결의 및 조직화(3월 13일 대전에서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 ▲4월말 총력투쟁 돌입(4월 28일 민주노총 총력연대투쟁 참가) ▲1년간 한시적 조합비 1% 인상(2%→3%) 조합원 총투표(3월 17일~3월 19일)
- 2월 25일(목) 14:35~16:45 노사는 대전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임단협 실무교섭 개최, 당사자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종료(3월 4일 교섭 재개 예정)
 - 임금 관련: 사측은 '09년 임금 동결, 임금구조개선사항(연봉제, 임금피크제, 직무급 제도 등)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을 요구, 노조는 임금 3% 인상, 임금구조개선사항은 임금교섭에서 논의 주장
 - 단협 관련: 전문부터 전체 조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사간의 입장 확인 **KLI**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